

Blake와 신비주의*

李廷鎬

I. 글을 시작하며

최근 Blake의 시에 대한 연구와 그의 사상에 대한 평가에 있어, 신비주의가 가지는 중요성과 위치를 과소평가하는 것이 Blake 연구의 주조를 이루고 있다. 이는 Blake 사후 처음 100년 동안은 거의 모든 Blake 연구자들이 그를 신비주의자(mystic)라고 부른 것과 비교하면 커다란 차이가 아닐 수 없다. 지금은 Blake를 신비주의자라고 부르는 비평가가 거의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다.¹⁾

물론 Blake를 신비주의자로 불렀던 초기 비평가들은 Blake를 신비주의자라고 부름으로써 그를 도피주의자나 복고주의자로 보려는 경향이 놓후했다. 이 경우 Blake는 현실 문제에 적절적으로 맞닥드려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자신이 아는 신비적인 깨달음을 깨달음에 이른 몇몇의 다른 사람에게만 비밀스럽게 서로 전한다는 의미에서의 신비주의자라는 의미가 많이 풍긴다. 이 경우 Blake는 현실 도피적이고 천상 세계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인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러한 초기의 비평태도는 Blake의 진면목을 아는데 오히려 방해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서 역전된 최근의 비평에서는 Blake의 신비주의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그의 시와 사상을 논하는 것으로 이는 초기의 비평에서와는 정반대의 비평방향이다. 초기의 비평태도가 Blake에 있어서의 신비주의적인 면만을 너무 강조하여, 신비주의가 갖는 부정적인 면만을 지나치게 드러낸 결과를 불러일으켰다면, 최근의 비평태도 또한 Blake에 나타난 혼세 중심적인 측면과 인간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것 또한 초기의 Blake 비평태도의 방향을 고쳐잡는다고하면서 반대 방향으로의 방향전환을 이룩했다는 의미에서는 바람직 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정반대 방향으로의 전환은 초기의 비평태도 만큼이나 많은 오류를 불러 일으킬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Blake의 사상과 그리고 그의 사상과 상상력의 표출인 그의 작품(시) 세계에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아주 많이 드러나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Blake를 평가하는 정당한 평가기준이라고 할 수 없다.

Blake의 초기 비평에서는 그의 작품에 나타난 신비주의적인 면만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것이 갖는 부정적인 측면이 필요 이상으로 강조되는 결과를 낳았었다. 한편, 최근의 비평태도에서는 Blake의 사상과 작품에 있어서 혼세적인 면과 인간적인 면이 너무 강조되기 때문에, 따라서 Blake의 신비주의적인 측면이 죽고마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Blake의 초기 비평과 최근 비평 모두에 나타나는 한 쪽만을 보는 결함을 보완하여, 좀더

* 이 글은 1988년도 문교부 학술연구비 보조에 의한 연구임.

1) John R. Holmes, *William Blake's Place in the Mystical Tradition* (Kent State Univ., 1985), Unpub. Doct. Dissertation, p.1.

균형있게 Blake의 시세계를 비춰보는 시도로서, 그의 시에 나타난 신비주의적인 측면을 보고자 한다.

II. 본 론

(a) Blake는 신비주의자인가?

우선 우리는 Blake가 신비주의자인가의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이 글의 순서로 보아 가장 먼저 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논의는 사실상 Blake 연구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논의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제 자리를 찾지 못한 논의 가운데 하나에 속한다. 이렇게 Blake의 연구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논의 중의 하나가 일찌기 제 자리를 찾지 못하게 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필자는 다음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유라고 본다.

(1) 그 첫째 이유는 (흔히 Blake Industry로 불리우는) Blake 연구에 있어서 방향을 설정해 주고 영향력을 행사해온 인물들인 선행 연구자들에게서 찾을 수 있다. 이들은 여러가지 형태로 최근의 Blake 연구가 취하고 있는 방향에 기여했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들 Blake의 선행 연구자들이 Blake의 신비주의적인 측면을 어떻게 보았느냐 하는 점과, 뒤에 온 Blake 연구자들이 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점으로 압축된다. 이들 선행 연구가들은 Blake의 신비주의적인 요소에 대해서 다음 몇 가지의 가능한 태도를 보였다. 즉, Blake의 신비주의적인 측면을 과소 평가하거나 무시했을 가능성은 그 하나이고, 그 두번째는 이들이 Blake의 신비주의적인 측면을 잘못 이해했을 가능성은 있으며, 뒤에 온 Blake 연구가들이 이들 선행 연구가들의 생각을 그대로 따랐을 가능성이다.

(2) 두번째 이유는 Blake의 신비주의적인 측면에 대해 선행 연구가들이 과심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들이 신비주의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지 못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차연히 Blake의 신비주의적인 측면이 개념정의의 불명확성 때문에 모호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머리를 돌려서, 위에서 든 첫번째 이유, 즉 영향력있는 Blake의 선행연구가들이 Blake의 신비주의적인 측면을 어떻게 보았는가하는 논의로 되돌아 가보자. Blake를 신비주의자(mystic)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한 이의를 제기한 Blake 연구에 있어 20세기의 영향력 있는 선두주자들 중에서, 우리는 Northrop Frye와 Martin Nurmi를 들 수 있다. 이 둘은 후학들의 Blake 연구방향에 큰 영향을 미친 연구가들이다. 우선 Nurmi를 보면, 그의 *William Blake*²⁾에는 Blake의 신비주의적인 측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Northrop Frye의 경우에는, 그의 선구적인 Blake 연구서인 *Fearful Symmetry: A Study of William Blake*(1947)³⁾의 끝에 “General Note: Blake’s Mysticism”이라는 장(章)을 특별히 마련하고, 그 첫 구절을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시작한다.

The word “mystic” has never brought anything but confusion into the study of Blake, and, in my anxiety to prevent it from cluttering up this book, I have begun by conceding, as a sort of opening gambit, the conventional mystic’s attitude to the artist as the imperfect mystic who cannot wholly detach himself from the sensible world. But it does not follow that I am willing to let the conventional mystic remain in possession of the field. (Frye, p.431)

2) Martin K. Nurmi, *William Blake* (Kent, OH.: Kent State Univ. Press, 1976).

3) Northrop Frye, *Fearful Symmetry: A Study of William Blake* (Princeton Univ. Press, 1947).

위의 인용을 끔끔히 들어보면 결국 다음과 같은 말이 된다. 즉, Blake를 신비주의자라고 부르는 것 조차도 생각의 흐름을 허뜨리는 것 이외에는 아무 쓸모없는 일이다(Frye는 *mystic*이라는 단어의 앞뒤에 인용부호를 침으로써 이 말 자체에 대해서도 거부반응이 있음을 분명히 드러낸다). 그는 더구나 근심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anxiety*라는 말을 쓴으로써, Blake를 신비주의자로 보려는 후학들의 기대되는 기도에 대해서까지도 깊은 우려와 걱정을 표명하며,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심경을 피력한다. Blake가 신비주의자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의가 그의 책을 허뜨리드릴까봐서, 그는 백보를 양보하여 예술가란 불완전한 신비주의자라고 하는 선에서 이 책의 본문에서는 양보하긴 했으나, 이 책이 다 끝난 단계에 와서는 이러한 논의로 자신의 책을 허뜨릴까봐서, 그는 백보를 양보하여 예술가란 불완전한 신비주의자라고 하는 선에서 이 책의 본문에서는 양보하긴 했으나, 이 책이 다 끝난 단계에 와서는 이러한 논의로 자신의 책을 허뜨릴(*cluttering up*) 걱정이 없어졌으므로, 부록으로 특별히 하나의 장(章)을 마련하고 거기서는 자신의 이같은 양보도 그냥 끝나게 하고 싶지 않다는 아주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Blake를 신비주의자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Frye가 이와같이 강한 어조로 반발과 단호한 의지를 표명했는데, 그가 차지하는 비중과 위치로 봐서 이와같은 그의 주장을 반박하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이 경우 T.S. Eliot. 가 비평의 주조를 이루던 시대를 상기할 것).

그러나 Frye의 주장을 주의해서 살펴보면, Blake가 신비주의자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고, Blake에게서 보이는 신비주의적인 특질을 굳이 *mystic*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다른 말로 부르고 싶어하는 그의 의도에서 이러한 주장이 나오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가 Blake의 시를 흔히 “*mystical*”이라는 말로 지칭하는데, Blake 자신은 이러한 말을 결코 쓰지 않았다고 Frye는 주장한다(Frye, p.7). 더 나아가서 그는 Blake가 *mystic*이라는 단어를 쓴 곳은 다음의 인용문에서 보는 곳이 유일하다고 주장한다(Frye, p. 436).

For the protection of the Twelve Emanations of Albions Sons The Mystic Union of the Emanation in the Lord. (*Jerusalem* 53:23-24, E203)⁴⁾

그러나 이곳 말고도 또 한 군데(*America*의 삭제된 원고)에서 Blake는 *mystic*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

On chairs of iron, canopied with mystic ornaments,
Of life by magic power condens'd; infernal forms art-bound
The council sat; all rose before the aged apparition (*America* b 13: 15, E58)

위에서 본 두 예에서는 모두 *mystic*이라는 단어가 *mysterious*라는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Frye의 주장을 듣고도 아직도 석연치 않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 그 첫째 이유는 누구를 신비주의 시인이라고 부를 때에 우리는 그가 몇번이나 *mystic*이라는 단어를 그의 시에서 썼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 *mystic*이란 단어를 전혀 쓰지 않고도 신비주의 시인이 충분히 되고도 남기 때문이다. 어떤 시인을 신비주의 시인이냐 아니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의 시에 배어 있는 사상이지, *mystic*이라는 단어의 사용

4) David V. Erdman, *The Complete Poetry and Prose of William Blake*, Newly Rev. Ed. (Garden City, N.Y.: Anchor Books, 1982), p.203. 본 논문에서 Blake의 시나 산문을 인용할 경우에는 위의 책에서 인용할 것이며, 인용의 근거는 따로 주를 달지 않고 본문에 쓰겠음.

빈도수나 쓰임새에 의한 평가 기준이 아니지 않겠는가?

Frye는 일반적으로 신비주의 시인이라고 불리우는 대부분의 시인들은 대부분이 visionaries라고 불리워지는 것이 더 나으리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Blake도 사실은 mystic poet이기보다는 visionary poet라고 부르는 것이 더욱 좋으며, Blake 자신도 visionary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음을 지적한다.

most of the poets generally called mystics might better be called visionaries, which is not quite the same thing. This is a word that Blake uses, and uses constantly. (Frye, p.8)

그러면 Frye가 주장하는 visionary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A visionary creates, or dwells in, a higher spiritual world in which the objects of perception in this one have become transfigured and charged with a new intensity of symbolism. (Frye, p.8)

Frye가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visionary는 이 세상의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천상(또는 영적인 세계)의 차원에서 세상의 사물을 본다는 것이다. 여기서 강조되는 점은 영적인 고양에 의하여 세상을 초월하는 예술적인 능력을 부여받은 예술가는 세상의 사물을 가지고 자신의 예술세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Blake도 이러한 경우의 아주 적절한 예가 된다. 이렇게 보면, visionary는 이와같이 예술적으로 고양된 영혼을 가지고 있어서 훌륭한 예술가가 될 수 있지만, mystic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Frye의 견해이다. 이러한 의견을 Frye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This suggests that mysticism and art are in the long run mutually exclusive, but that the visionary and the artist are allied. (Frye, p.8)

그러면 Frye는 결국 Blake는 visionary이기는 해도 mystic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일까? 다음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렇게 단정할 수만도 없음을 알게 된다.

If mysticism means primarily a contemplative quietism, mysticism is something abhorrent to Blake, a Selfhood-communing in Ulro; if it means primarily a spiritual illumination expressing itself in a practical and (in spite of its psychological subtlety) unspeculative piety, such as we find in the militant monasticism of the Counter-Reformation, the word still does not fit him. But if mysticism means primarily the vision of the prodigious and unthinkable metamorphosis of the human mind just described, then Blake is one of the mystics. (Frye, p.432)

여기서 Frye는 결국 Blake가 mystic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에 본 Frye의 언급(즉, “mystic”이라는 말은 Blake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혼란만을 야기할 뿐이라는 것—Frye, p.431)은 이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는 위에서 신비주의와 예술은 상극이지만, visionary와 예술가는 서로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Frye, p.8), Blake가 visionary라는 Frye 자신의 말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 인상을 준다. 그렇다면 Frye에게서 보는 이와같은 개념의 혼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은 Blake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술가로서의 특성은 mystic이나 visionary라

는 두 말 중의 어느 하나만으로 끓을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Blake를 visionary-mystic이라고 부름으로서, 이 두 말이 갖는 상충을 모두 포용하는 인물로 볼 수 있다. 이는 바로 Blake의 특이성이기도 하며,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개념으로는 그의 특성을 모두 담아낼 수 없다는 어려움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mystic하면 우리가 흔히 연상하는 것은 조용히 은둔하며 세상과는 담을 쌓고사는 인물을 연상하게 되는데, Blake는 이러한 mystic과는 아주 딴판으로 세상의 돌아가는 일에 큰 관심을 가졌다. 그렇지만 그는 정신적인 고양으로 인하여 세상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 사물을 단지 그 자체가 아닌 그 이상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그가 mystic이나 visionary 들 중의 어느 하나에 속하기를 강요하기보다는, 이 둘을 포괄하면서 이들을 뛰어넘는 인물로 봐야 마땅할 것이다. 이같은 경우에 우리는 지금까지 보아온 Frye의 곤혹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Blake에게 있어서 예술은 그러므로 자신의 사상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정신수양이라고 봐야 마땅할 것이다.

From this point of view, Blake's "art" becomes a spiritual discipline like the Eastern "yoga," which liberates man by uniting him with God. The true God for such visionaries is not the orthodox Creator, the Jehovah or Isvara or Nobodaddy who must always be involved with either an eternal substance or an eternal nothingness, depending on the taste of the theologian, but an unattached creative Word who is free from both. (Frye, p. 431)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하여, Blake의 예술 세계에 대해 조금은 알게 되었다. 그는 mystic이라거나 visionary라거나 하는 우리가 흔히 쓰는 개념으로는 잡히지 않는 독특한 예술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는 어느 기성 종교의 신이 아닌 자유스러운 창조력 그 자체(an unattached creative Word)와 하나가 되는 정신 수양이 곧 그의 예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물었던 첫번째 질문(즉, 20세기의 선행 연구가들이 Blake를 신비주의 시인으로 보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은 선행 연구가들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Blake라는 그릇이 큰 인물을 visionary니 mystic이니 하는 작은 크기의 척도를 써서 그중의 하나의 개념으로만 담아내려다 보니 그를 이미 있는 틀에 맞추기가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자연히 야기된 문제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Frye의 다음과 같은 언급을 살펴보면 더욱 확실해진다.

Unity with this God could be attained only by an effort of vision which not only rejects the duality of subject and object but attacks the far more difficult antithesis of being and non-being as well. This effort of vision, so called, is to be conceived neither as a human attempt to reach God nor a divine attempt to reach man, but as the realization in total experience of the identity of God and Man in which both the human creature and the superhuman Creator disappear. (Frye, p. 431)

Blake에게 있어서 신과의 합일은 그러므로 주체와 객체의 이원성을 깨뜨리는 작업이며, 이는 기독교에서 보듯이 인간이 신과 합일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한 신이 인간과 합일하려는 노력의 결과도 아니다. 이는 신과(원형으로서의) 인간(Man)이

자연스럽게 합일함으로써 신인 창조주의 피조물인 인간사이의 벽이 허물어져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존재와 비존재까지를 포함하는 폭넓은 것으로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개인적인 구원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시도가 Blake에게는 예술의 양식으로 나타난다. 이와같은 Blake의 vision은 아주 특이한 것이어서, Frye의 지적대로 선(禪) 불교에서 보는 예술관과 아주 가깝다고 할 수 있다(Frye, p. 431). 특히 선불교에서 보는 역설(paradox)은 Blake시의 특질파도 일맥 상통하는 것이어서, 보통 우리가 서구의 전통에서 보는 좁은 예술관의 입장에서는 Blake의 예술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두번째 문제(즉, 신비주의라는 용어의 개념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Blake를 신비주의자라고 부르는 것이 불가능한가에 대한 것)은 위에서 첫번째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해답을 얻을 수 있다. Blake는 신비주의자의 특질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러나 그에게는 서양에서 지금까지 쓰여 왔던 신비주의자(mystic)라는 범주에는 들지 못하는 아주 특이한 점이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이같은 Blake 특유의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어떤 것인가를 좀 더 분명히 밝혀보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 중의 하나이다.

(b) 선(禪)과 Blake의 신비주의와의 유사성

우선 Blake의 신비주의의 특이성은 서양의 신비주의가 아닌 동양의 신비주의, 특히 선과 큰 유사성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 Helen White의 저서 *The Mysticism of William Blake*(1972)⁵⁾에 의하면, Blake는 서양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신비주의와는 아주 거리가 멀다. Helen White가 여기서 말하는 서양의 신비주의는, 개신교의 종교개혁의 영향에 대항하여 천주교 측에서 반작용으로 생긴 반 종교개혁(Counter-reformation)의 일환으로, 스페인의 성인들이 주가 되어 일어난 신비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금욕과 절제를 통하여 신과의 합일을 이루는 *Via Negativa*(Negative Way)이다. 이러한 수행 방법은 스페인의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St. Teresa, 1515~1982)가 그녀의 *Way of Perfection*(1565)와 *Interior Castle*(1577)에서 밝히고 있는 방법이다. St. John of the Cross는 더 나아가서 “dark night”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Via Negativa*의 신비주의는 Evelyn Underhill의 저서인 *Mysticism: A Study in the Nature and Development of Man's Spiritual Consciousness*(1926)에서 잘 설명이 돼 있다.⁶⁾ Underhill은 이러한 신비주의의 단계를 다음의 다섯으로 나누고 있다. (1) the awakening of self, (2) the purification of self, (3) illumination, (4) the dark night of the soul, (5) union.

그러나 Blake에게서는 이러한 *Via Negativa*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⁷⁾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 점이 바로 Blake의 신비주의가 선(禪)과 아주 가까운 이유이다. Blake는 Wilkins가 번역한 *Bhagavadgita*를 읽었다.⁸⁾ 이 인도의 경전에 들어 있는 근본 사상은 후에 불교로 이어지며, 이는 또한 선의 전수가 되었다.

5) Helen C. White, *The Mysticism of William Blake* (Madison: Univ. of Wisconsin Press, 1927).

6) Evelyn Underhill, *Mysticism: A Study in the Nature and Development of Man's Spiritual Consciousness*, 12th ed. (New York: Dutton, 1930).

7) Leopold Damrosch, Jr., *Symbol and Truth in Blake's Myth* (Princeton Univ. Press, 1980), p. 47.

8) Carolyn Washburn and Lawrence Huston Houtchens eds., *The English Romantic Poets and Essayists* (New York Univ. Press, 1966), p. 17.

기독교의 신비주의와 선은 몇 가지 근본적인 면에서 아주 다르다. 우선 기독교에서는 창조주인 신과 이의 지음을 받고 태어난 인간(및 모든 다른 괴조물) 사이에는 뛰어 넘을 수 없는 간격이 있다. 이는 신의 무한성과 인간의 유한성이라는 뛰어 넘을 수 없는 간격이다. 유한한 인간과 무한한 존재인 신과의 합일은 오직 인간이 자신의 보잘 것 없음을 겸손하게 받아들여, 대단히 기꺼운 마음으로 신의 뜻에 복종함을 의미한다. 이 경우, 무한의 존재인 신은 인간을 사랑하여, 괴조물인 인간의 분에 넘치는 대우, 즉, 신과의 합일을 이룩하게 한다. 이것은 대단히 의경스러운 일이고, 두려운 일이기까지하다. 이 경우 인간은 의경과 두려움을 갖게 되며, 아울러 보잘 것 없는 인간이 위대한 신과 합일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근심과 걱정을 아니 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비주의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the dark night of the soul이다. 특히 이러한 경험을 St. John of the Cross는 그의 *The Dark Night of the Soul*에서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거친 다음 신비주의자는 신과의 합일을 이루어, 신이 인간속에 같이 하고, 인간이 곧 신 속에 같이 하게 된다.

그러나 Blake에게는 이러한 the dark night of the soul의 두려움과 의경의 경험이 없다. 이는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사실이다. Blake는 왜 이런 영혼의 고뇌를 겪지 않았으며, 또한 이런 필요를 느끼지 않았을까? 이 문제를 답하기 위하여 우리는 Blake의 창조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연구가들이 Blake의 신비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큰 이유는 그가 기독교 신비주의자라고 생각하는 데에 있다. Blake는 기독교의 전통에서 태어나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통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점을 우선 밝힐 필요가 있다. 그는 성경을 즐겨 읽었으나, 그에게 있어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이 아니고, 단지 재미있는 이야기책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성경을 읽음으로써 기독교 신앙을 돋독히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는 것은 단지 상상력을 키우기 위함이었다.

Why is the Bible more Entertaining & Instructive than any other book. Is it not because they are addressed to the Imagination which is Spiritual Sensation (Letter #5, 702-3)

이와같은 그의 생각으로 인하여, 그가 중세에 살았더라면 아마도 종교 재판에 회부되어, 이단으로 판정되어 장작더미 위에서 태워 죽는 형벌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Thomas J.J. Altizer의 지적대로, 그는 아마도 “최초의 기독교적인 무신론자”임에 틀림없다.⁹⁾ 이 말 자체가 역설적으로 들릴지는 모르나, 그는 무신론자이면서도 기독교도가 될 수 있는 특질을 갖고 있었다. 그가 예수를 믿고 있었다는 의미에서는 기독교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예수를 신앙의 대상이 아닌 완전한 상상력의 발현이라고 보는 의미에서는 무신론자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독교의 근본 교리인 신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가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믿었다 해도 그는 무신론자임에 틀림 없다. 더구나, 예수를 신앙의 대상이 아니고, 단지 그를 인간과 신의 완전히 계발된 상태로 보았다는 것은 오히려 정통 기독교의 교리에도 어긋나는 일이며, 이는 예수를 예술의 상상력으로만 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Blake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독창적인 예언자이고 선지자인

9) Thomas J.J. Altizer, *The New Apocalypse: The Radical Christian Vision of William Blake* (East Lansing: Michigan State Univ. Press, 1967), p.xi.

셈이다.¹⁰⁾

선과 Blake의 신비주의 사이의 유사점을 좀 더 자세히 보기로 하자. Blake는 기독교에서 믿는 것처럼 창조주인 신이 세상과 만물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인류의 원조인 Adam과 Eve가 신의 계율을 어겼기 때문에, 후세의 모든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젖게 돼 있는 원죄에 대한 의식이 없다. 원죄란 나와 타자인 신 사이에 내가 (즉, 나의 조상인 Adam이) 신이 정해준 계율을 깨뜨리므로 생기는 것이다. 기독교의 교리에 의하면 Adam 이후의 인간은 이 엄청난 굴레에서 해어 나올 수가 없다. 그러나, Blake는 이러한 원죄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커다란 구속의 하나님을 벗어놓은 셈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Blake는 신이 정해준 계율을 지켜야 하는 강박관념이 없어졌으며, 또한 타자인 신을 의식하면서 생기게 되는 자의식(Self-consciousness)도 느낄 필요가 없다. 그는 이 넓은 우주에서 자기를 속박할 그 누구도 상전으로 갖지 않으며, 자신만이 자신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구원을 책임지는 셈이다. 이러한 자의식이 없는 그에게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신과 합일하려는 과정에서 자연히 생기는 불안과 걱정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Blake의 이러한 태도는 선에 아주 가깝다. Altizer의 지적대로, Blake가 선을 알았을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지만, Blake가 가지고 있던 신비주의적인 통찰력이 동양의 어느 다른 신비주의 보다도 선에 가장 가깝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선과 Blake의 신비주의적인 경향과의 관계를 가볍게 지나쳐 버릴 수가 없다.¹¹⁾ 또한 기독교에서는 신을 의식적으로 염두에 두고 신비주의를 수행하지만, 선에서는 신(또는 그 어떤 절대자나 창조자)를 의식하는 것을 철저히 배격하는 점을 감안한다면¹²⁾, Blake의 신비주의는 선과 아주 가깝다는 것을 더욱 잘 알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Blake의 예언시인 *Milton*이나 *Jerusalem*을 읽을 때에 마치 불경을 읽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하는 것은 바로 이같은 이유때문이다.¹³⁾ Blake의 신비주의가 선과 다른 점은, 선은 동양적이기 때문에 정적(靜的)이라면, Blake의 신비주의는 이러한 선의 정적인 면을 활성화(energize)했다는 차이밖에 없을 것이다.¹⁴⁾

Blake는 자신의 신비주의적인 사상체계를 가장 잘 나타내는 방법으로 신화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그의 후기의 시들인 예언시들은 신화 체계를 갖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 신화란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신화를 씀으로써 Blake의 생각은 그저 자기 자신만의 생각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원형을 대표하는 방법이 된다. 그러므로 그의 신화는 그가 어떻게 하면 원초적인 인간의 모습을 가장 잘 담을 수 있을까 하여 창조해낸 그 자신의 독창적인 표현 방식이다. 그는 남의 생각의 노예가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기피하여, 이전까지 있던 로마나 흐립신화체계도 쓰지 않았으며, 또한 이전의 어느 신화체계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도 쓰지 않았다. 그의 시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I must Create a System, or be enslav'd by another Mans I will not Reason & Compare: my

10) Altizer, p. xi.

11) Altizer, p. 180.

12) D.T. Suzuki, *An Introduction to Zen Buddhism* (New York: Grove Press, 1964), p. 132. William Johnston, *The Still Point: Reflections on Zen and Christian Mysticism* (New York: Fordham Univ. Press, 1970), p. 190.

13) Altizer, p. xix.

14) Altizer, p. 179.

business is to Create (*Jerusalem* 10:20, E153)

그러므로 그에게는 자신의 신화를 창조하는 것이 곧 그의 시의 작업이었다.

그러면 타락하기 전의 원초의 인간은 그의 신화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타락하기 전의 인간은 우주를 꽉 채우고 있었다. 하나의 생각이 광대 무변의 우주를 꽉 채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원초의 인간에게는 영혼과 육체가 따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몸이 또한 넓디 넓은 우주를 꽉 메운 것이기도 하다. Blake는 육체와 떨어져 있는 영혼이나, 또는 영혼과 따로 떨어져 있는 육체를 생각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이 원초적인 원형의 인간에게도 육체와 영혼은 별개의 것이 아닌 합일적인 것이었다.

Man has no Body distinct from his Soul for that calld Body is a portion of Soul discerned by the five Senses. The chief inlets of Soul in this age (*Marriage of Heaven and Hell*, E34)

이러한 자족(自足)의 상태의 원초적인 인간은 Albion이다. 그는 우주적인 인간(Cosmic Man)으로서 모든 만물과 인간성이 그안에 모두 포함돼 있다. 이러한 Albion이 분열하고 축소하여, Tharmas, Urizen, Luvah, Urthona 등 네종류의 Zoas로 갈라져 나온다. 그러나 이 Zoas가 결국 하나로 통합되고 완성되는 것은 원초의 생명인 Albion이다.

불교(또는 힌두교)에서는 이처럼 의인화된 원초적인 인간은 없지만, Albion과 비슷한 개념을 우리는 Brahman에서 볼 수 있다. Brahman은 모든 생성의 근원이고,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변화하는 것의 근본원리이다.¹⁵⁾ Blake에게는 Albion이 원초적인 인간이고, 거기서 축소되고 분리돼 나온 것이 Zoas이다. 그러므로 Zoas는 Albion의 특성을 갖춘 불완전한 Albion의 축소 모델인 셈이다. 불교에서도 마찬가지로 Brahman이 우주 혼(Cosmic Soul)이라면, Atman은 작은 우주 혼으로서, Brahman처럼 우주적이거나 완전하지는 못하나, Brahman의 속성을 축소하여 갖고 있는 혼이다. Blake에게 있어서 인간(그리고 세계)의 구원은 Zoas가 통합되어 최초의 인간인 Albion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Atman이 Brahman과 통합하는 것이 곧 인류와 세계의 구원이다. 이러한 통합이 이루어지면, Albion에서처럼, 각자 따로 따로 떨어져 있던 Atman이 Brahman 속에서 조화와 융합을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Blake는 개개인을 “limit of contraction”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우주가 더 이상 줄어들지 못하게 되어 고정된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이미 Nicholas Cusanus가 그의 *Of Learned Ignorance*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In each individual the universe is by contraction [cf. Blake's “limit of contraction”] what the particular individual is; and every individual in the universe is the universe, though the universe is in each individual in a different way and each thing is in the universe in a different way.¹⁶⁾

Blake는 그러므로 신과 인간을 서로 질적으로 다른 존재로 인식하지 않았다. Blake에게 있어서는 Plato적인 이원론(dualism)은 조금도 설득력이 없었다. 신이 축소되고 분열된 것이 인간이고, 또한 인간이 확대되고 완성된 것이 신(또는 우주)일뿐, 이 둘 사이에는 어떠

15) Georg Siegmund, *Buddhism and Christianity*, tr. Sr. Mary Frances McCarthy (Univ. of Alabama Press, 1968), p.138.

16) Damrosch, p.21에서 재인용.

한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Blake는 생각했다.

All Things are comprehended in their Eternal Forms in the Divine body of the Saviour the True Vine of Eternity The Human Imagination.... (*A Vision of the Last Judgement*, E555)

it ought to be understood that the Persons Moses & Abraham are not here meant but the States Signified by those Names the Individuals being representatives or Visions of those States as they were revealed to Mortal Man in the Series of Divine Revelations. as they are written in the Bible these various States I have seen in my Imagination when distant they appear as One Man but as you approach they appear Multitudes of Nations. (*A Vision of the Last Judgement*, E556)

Blake의 이러한 생각은 그의 *The Everlasting Gospel*에 잘 드러나 있다.

Thou art a Man God is no more
Thy own humanity learn to adore (E520)

이 구절은 Blake 연구가들 사이에서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키는 대목이다. Mark Schorer는 이 대목을 다음 두 가지 뜻으로 보고 있다. 즉, (1) 신은 인간이상이 아니며, (2) 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¹⁷⁾ 위에 든 두 가지 뜻 중에서 첫째번 뜻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하더라도, 두번째 뜻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파격적으로 들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는 인간이 그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되면, 신은 Blake에게는 필요없는 존재가 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두번째 뜻과 첫번째 뜻과는 그렇게 많은 거리가 있지 않다. 두번째 뜻으로 쓰인 표현을 우리는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다. 그는 *The Marriage of Heaven and Hell*에서

"those who envy or calumniate great man hate God, for there is no other God" (E43)

라고 한다. 그리고 Henry Crabb Robinson의 기록에 따르면, Blake는 그에게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말하고는 곧 이어서 "and so am I, and so are you."¹⁸⁾라고 말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위의 두번째 뜻도 Blake가 의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사람은 곧 보이지 않는 신이 구체적인 형태로 형상화된 것이므로, 신은 사람으로서만 구현될 수 있다. 이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바와는 달리, 인간은 신의 형상(image)이 아니라, 신의 실재이며 실체이다. 이러한 Blake의 생각은 그의 시들중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Therefore God becomes as we are, that we may be as he is ("There is No Natural Religion" b, E3)

Attempting to be more than Man We become less (*Four Zoas*, E403)

Man is All Imagination God is Man & exists in us & we in him (Annotations to Berkeley's *Siris*, E664)

17) Holmes, p. 183.

18) Holmes, p. 184에서 채인용.

Blake의 이같은 생각은 불교에서 부처와 중생(또는 인간)을 보는 견해와 같다. 부처와 중생은 서로간에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부처(buddha)는 단지 “깨달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무리가 곧 중생이다. 불교의 중관학파(Madhyamika School)에서는 모든 존재는 하나이지 둘이 아니라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절대의 세계인 *nirvana*와 현상의 세계인 *samsara*가 따로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빨라야 빨 수 없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nirvana*와 *samsara*는 둘이 아니고 하나이다.¹⁹⁾ 그러므로 아주 작은 개체인 티끌 속에도 온세계가 들어 있다(一微塵中有三千大千世界). Blake에서와 마찬가지로 불교에서도 신성의 초월(transcendence)과 내재(immanence)는 서로 다른 종류의 것이 아니고, 단지 표현의 차이일 뿐이다. 이는 세상은 곧 신의 껌질이 아니고 실체자체이기 때문이다.²⁰⁾ Blake는 그러므로 밤낮으로 신의 현전(現前)속에 살고, 신은 그에게서 얼굴을 결코 돌리지 않는다.

I am in Gods presence night & day
And he never turns his face away (“I rose up at the dawn of day,” E481)

Blake의 이와같이 독특한 생각은 그에게 독창적으로 “보는”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보는” 능력은 Blake의 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그의 시에 “보는 것”(vision)과 “눈”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오는 것은 이것을 뒷받침한다. 이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Albion의 타락이다. Albion에게 있어서 타락이란 기독교에서처럼 신의 계명을 어겼다든지 하는 타율적(他律的)인 것이 아니고, 영원을 느낄 수 있는 지자력을 잃고, 또한 내부에 있어야 할 감각이 밖으로 튕겨져 나옴으로써 일어난다.

Rising upon his Couch of Death Albion beheld his Sons Turning his Eyes outward to Self.
losing the Divine Vision....

Their eyes their ears nostrils & Levi slept on Snowdon What is within now seen without(*Four Zoas*, E313-4)

몸의 내부에 있어서 밖을 느껴야 할 감각기관들이 밖으로 튕겨져 나왔으니, Albion이 타락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Marriage*에서도 이와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다. Blake는 그가 Ezekiel과 Isaiah와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들이 신과 대화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는다. 이에 대해 Isaiah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I saw no God. nor heard any, in a finite organical perception; but my senses discover'd the infinite in every thing (E38)

그리고 더 나아가서 Blake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If the doors of perception were cleansed every thing would appear to man as it is: infinite.
(E39)

19) Altizer, p.182.

20) Warren Stevenson, *Divine Analogy: A Study of the Creation Motif in Blake and Coleridge* (Salzburg, Austria; Universität Salzburg, 1972), p.34.

그러므로 우리가 신과 같게 되려면 흐려지 않은 눈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고 눈을 통해서 보기 때문이다.

I question not my Corporeal or Vegetative Eye any more than I would Question a Window concerning a Sight I look thro it & not with it. (*A Vision of the Last Judgement*, E566)

Blake의 신비주의적인 요소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요소 중의 하나는 그가 언제나 사물을 끌어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신비주의자는 이같은 지각능력을 가지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창조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Blake의 “밝은 눈”은 그가 Felpham에서 Butts에게 보낸 1800년 10월 2일의 편지에 아주 잘 나타나 있다.

My Eyes did Expand
 Into regions of air
 Away from all Care
 Into regions of fire
 Remote from Desire
 ...
 My Eyes more & more
 Like a sea without shore
 Continue Expanding
 The Heavens commanding
 Till the Jewels of Light
 Heavenly Men beaming bright
 Appeared as One Man (E712-3)

우리의 눈은 보기만 할뿐만 아니라, 대상을 변화시킴으로써,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역할도 한다.

The Eye altering alters all (“The Mental Traveller,” E485)
 As a man is So he Sees. (Letter to Trusler, Aug. 23, 1799, E702)

Blake는 이처럼 흐려지지 않은 눈을 다음과같이 여러가지로 표현했다.

immortal eye (*Jerusalem* 5:18, E147)
 Minds eye (“The Ghost of Abel” 1:23, E271)
 inward eyes (*Four Zoas* 19:14, E313)
 Eye of Imagination (Annotations to Berkeley’s *Siris* 219, E664)
 visionary eye (*Milton* 39:33, E140)

이에 비하여 흐려진 눈과 막힌 감각을 Blake는 다음의 여러가지 표현으로 보여주고 있다.

those senses that are clos’d from thought (*Europe* 12:8, E64)

vegetable eyes (*Milton* 26:12, E123)
Generated Organs (*Laocoön*, E273)
Mortal Eyes ("To the Queen," E480)
Corporeal Vegetative Eye (*A Vision of the Last Judgement* 91, E563)

Blake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사물과 사물의 진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fourfold vision이라고 부르고, 이것은 곧 인간의 지각 능력이 원초의 인간인 Albion처럼 성숙한 상태에서 기대되는 것이다.

불교에서도 “보는” 능력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Suzuki는 “보는” 능력이 불교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We know that seeing is very much emphasized in Buddhism, but we must not fail also to notice that seeing is not just an ordinary seeing by means of relative knowledge; it is the seeing by means of a *prajñā*-eye which is a special kind of intuition enabling us to penetrate into the bedrock of Reality itself.²¹⁾

불교에서는 또 견성 성실(見性成佛)이라는 말이 있다. 즉, 인간이 자신의 본성을 보는 것이 곧 부처가 되는 것이란 뜻이다. 이는 Blake가 인간이 Four Zoas로 분열·축소되기 전에 통합된 원초적인 인간인 Albion이 있었다고 본 것과 같다. Blake에게는 모든 인간이 Albion이 될 수 있듯이, 불교에서도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가 부처가 되는 길은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불성(佛性)인 인간성에 “눈”을 뜨는 것이다.

Blake의 이와같이 “보는” 능력은 그의 “*Auguries of Innocence*”에 아주 잘 드러나 있다.

To see a World in a Grain of Sand
And a Heaven in a Wild Flower
Hold Infinity in the palm of your hand
And Eternity in an hour (E490)

즉, 모래 알은 세계의 축소 모델이며, 들꽃에는 천국이 들어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손안에 무한을 잡을 수 있으며 한 시간은 곧 영원을 품고 있다. Blake는 이같이 상반되는 두 가지의 특질들이 서로간에 아무런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서로가 함께 연결돼 있음을 보고, 이들은 상반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하나의 성질은 다른 또 하나의 성질의 연장이라고 보고 있다. Blake는 1799년 8월 23일에 Dr. Trusler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Some Scarce see Nature at all But to the Eyes of the Man of Imagination Nature is Imagination itself (E702)

Blake는 보통 우리가 자연을 어느 관념(idea)의 그림자쯤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이처럼 경계

21) D.T. Suzuki, "The Basis of Buddhist Philosophy," in Richard Woods, ed., *Understanding Mysticism* (London: Athlone Press, 1981), p.128.

하고 있다. 상상력이 충만한 사람, 즉, 사물을 똑바로 “보는” 사람에게는 자연이 곧 상상력임을 Blake는 지적한다. 이는 대승 불교에서 *nirvana*와 *samsara*가 같은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과 같다.²²⁾ 즉 세상의 모든 것은 원형인 비어있음(空) 그 자체이고, 비어있음은 곧 세상 만물이다(色即是空 空即是色).

이와같이 독특한 형태의 “봄”(seeing)은 Blake로 하여금 가끔은 논리적인 모순을 일으킨다. 예를 들면, Blake에게는 그리스도는 신성(神性)과 인간성이 합일한 존재이다. 이는 논리적인 모순을 불러 일으킬 소지를 품고 있다. 무한한 존재인 신의 특성과 유한한 존재인 인간의 특성은 같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모순을 예수에게서 아무런 장애없이 신앙으로 받아들이듯이, Blake 또한 그의 독특한 “눈”으로 아무런 저항없이 이를 받아들인다. Blake는 이런 면에서 은유(metaphor)를 곧이 곧대로 받아들인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Blake는 literal imagination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봐야 할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literal imagination을 갖고 있다고 말할 경우, 그는 고지식하고 단순하게 사물의 겉만을 보는 세련되지 못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기 쉽다. 그러나 literal imagination이란 그것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To describe someone as possessing a “literal imagination” has often been to suggest that that person sees only the banal surface of things, the letters of the law; at the same time, “literal imagination” can suggest an industrial-strength, hard-core version of the faculty that has in fact opposed literalism ever since the discovery of its own pleasures. “Literal” can thus be brought to resonate through “imagination,” literally naming two different contexts.²³⁾

더 나아가서, John R. Holmes의 지적에 따르면 Blake의 가장 특징적인 이미지는 논리에 어긋나는 hypostasis의 모순을 내포한다. Hypostasis의 가장 좋은 예는 그리스도로서, 신성과 인간성이 합일된 경우로, 이는 hypostatic union이다. Blake의 시에는 이에서 좀 더 나아가 “추상적인 개념을 마치 구체적인 사물처럼 여기는” hypostatic images들이 많이 있다.²⁴⁾ 이는 Blake의 literal imagination의 좋은 예이다. 이런 예들을 보기로 하자.

Joys upon our branches sit,
Chirping loud, and singing sweet (*Poetical Sketches*, E414)

And Laughter sat beneath the Oaks & innocence sported
Upon the green plains & sweet friendship met in palaces (*Four Zoas* 73:1-2, E350)

Blake의 이와같은 literal imagination은 “The Divine Image”에서 추상적인 개념인 Mercy, Pity 등을 구체적인것(이미지)로 보여준다.

To Mercy Pity Peace and Love,
All pray in their distress:

22) Altizer, p. 180.

23) Nelson Hilton, *Literal Imagination: Blake's Vision of Words* (Los Angeles, CA.: Univ. of Cal. Press, 1983), p. 2.

24) Holmes, p. 179.

And to these virtues of delight
Return their thankfulness.

For Mercy Pity Peace and Love,
Is God our father dear:
And Mercy Pity Peace and Love,
Is Man his child and care. (E12)

이 시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신은 Mercy와 Pity와 Peace의 총화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Mercy와 Pity와 Peace의 총화이다. 그렇게 되면, 신과 인간을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합동이 되는 셈이다. Blake 자신은 사물을 단순화시키거나 고정시키는 수학적인 사고를 적극 배격했지만, 좀 더 손쉬운 이해를 위하여 이와같은 Blake의 생각을 수학의 등식에 대입해 보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begin{aligned} \text{Mercy} + \text{Pity} + \text{Peace} &= \text{God} \\ \text{Mercy} + \text{Pity} + \text{Peace} &= \text{Man} \\ \therefore \text{God} &= \text{Man} \end{aligned}$$

이처럼, Blake는 그의 literal imagination에 의하여 구체적인 형태를 취한 우리 하나 하나의 사람은 인간성의 hypostasis이고, 이러한 인간의 특성은 “구원의 인간”(Eternal Human)에게서 연유하는 것이다. 이 구원의 인간이란 다른 아님 신이기 때문에, 인간과 신이 같다는 당연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Blake에게 있어서 인간과 신이 같다는 생각은 그의 기본적인 믿음이기도 하다.

The Eternal Body of Man is The Imagination
God himself
that is
The Divine Body (Laocoön, E273)

여기에서 Imagination은 우리가 본 literal imagination이며, 그러므로 The Eternal Body of Man은 곧 The Divine Body이다. 이는 곧 hypostatic union의 결과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Blake가 보는 hypostatic union의 특징이다. 우선 hypostatic union에서는 어느 한 요소가 다른 요소를 없애거나 또는 억압하지 않는다. 이처럼 한 요소가 다른 요소를 억압하고 제거하는 것을 Blake는 negation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개념은 선과 악같은 개념으로서, 이들은 서로를 저해하며 파괴한다. 그러나 Blake는 negation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contraries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Blake에 의하면 모든 사물은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contraries로 구성돼 있다. 이러한 contraries는 해겔의 변증법 (Hegelian dialectic)에서처럼 정(正, thesis), 반(反, antithesis)이 서로 대항하고 통합되어 어떤 다른 새로운 합(성)(synthesis)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²⁵⁾ Hegel의 경우에는 이러한 합성은 정(正)도 아니고 반(反)도 아닌 제삼의 어느 것이어서, 정과 반의 특질이 합(성)에

25) Nurmi, p. 75.

서는 없어진 셈이다. Blake에게는 이러한 정과 반이 자기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존재하면서 이들이 서로 역동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예를 들면, Lamb과 Tiger의 어느 특질이 다른 것을 제어하거나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각자의 독자성을 가지면서 역동적으로 공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contraries*의 역동적인 관계가 없으면 진보(progression)가 가능하지 않다.

Without Contraries is no progression. Attraction and Repulsion, Reason and Energy, Love and Hate, are necessary to Human Existence. (*Marriage*, E34)

이는 Blake에게서 나타나는 시적인 paradox가 아닐 수 없다.

Blake의 이와 같은 literal imagination은 세상에 존재하는 이원적인 상충(contradictions)을 신비적으로 보는 방법이다. 즉, 세상에 존재하는 정신과 육체, 주체와 객체, 상상력과 이성과 같은 상충 중 그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또한 그 어느 한쪽도 배제하지 않는 것이 Blake의 상상력의 특징이다. 그러므로, Blake는 이 상충되는 둘을 포용함으로써 상극이 뉙아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둘을 있는 그대로 두어 둘이 역동적으로 작용하게 함으로써 “정신의 투쟁”(Mental Fight)을 계속하게 그대로 놓아둔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물질적인 면이 정신적인 면에 흡수되지도 않고, (신비주의자인) 인간이 신에게 흡수되지도 않는다. 이들은 서로의 부분이며, 동시에 전체로서, 독립성과 상호 연관성을 유지한다. 이러한 신비적인 결합 속에서는 영원과 시간, 신과 인간, 추상성과 구체성, 보편성과 개성이 hypostatic union을 이루어, 이들은 각각의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하나이다. Blake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선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경지이다. 깨달음의 경지에서는 Carl G. Jung의 말처럼 “어떤 다른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보는 상태”일 뿐이다.²⁶⁾ 이는 “절대적인 일치의 경험이며, 주체와 객체를 넘어서는 상태”이다.²⁷⁾ 이러한 상태에서 깨달은 이에게는 모든 사물의 분별과 구별(distinctions and differences)이 없어지고, 둘이 아니고 하나로 보이지만, 또한 그는 각각의 특성을 퀘뚫어 볼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둘로 보이는 상태에 있다.²⁸⁾ 이것이 바로 Blake의 fourfold vision의 경지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한가지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Blake는 이성(reason)에 반대하고 본능(passion 또는 energy)을 더 중시한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많이 받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비평태도는 특히 초기의 Blake 연구에서 많이 나타나 있다. 그러나, Blake는 무절제하고 무제한적인 본능의 탐의를 반대한다는 것이 근래의 Blake 비평가들의 입장이다. 이러한 잘못된 견해를 수정하는데에는 Foster Damon과 Max Plowman 같은 비평가들의 노력이 컸다.²⁹⁾ Mark Schorer의 견해를 빌리면, “Blake는 이성(reason)에 반대한 것이 아니고, 이성의 독단(authority)에 반대한 것이다.”³⁰⁾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팔정도(八正道)와 같은 맥락

26) Johnston, p.53.

27) Johnston, p.21.

28) Christmas Humphreys, *Zen Buddhism* (New York: Macmillian, 1974), p.108.

29) 특히 다음을 볼 것.

S. Foster Damon, *William Blake: His Philosophy and Symbols* (New York: Houghton Mifflin, 1924).

Max Plowman, *A Study of William Blake* (London: Dent, 1927).

30) Holmes, p.218에서 채인용.

에서 볼 수 있다. 불교에서는 수행하는데에 있어 여덟가지의 실천방안을 팔정도라 부른다. 이의 근본정신은 수행을 함에 있어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을 경계하는 지침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Blake가 극단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는 것은 불교에서와 같은 맥락이다.

(c) 우주혼의 분열과 축소로서의 인간의 창조와 타락

낭만시인들의 특색은 새로운 눈으로 인간 역사를 보고, 또한 인간 역사의 연원을 캐보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³¹⁾ 이러한 낭만시인들의 특색이 Blake에게서도 또한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인간 역사의 시원을 신화적으로 보려고 했으며, 이러한 그의 시도는 그의 후기시에서 예언시라는 독특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가 가지고 있는 우주의 창조 신화는 그의 예언시의 다른 곳에도 나타나 있지만, 특히 “Urizen Trilogy”라고 불리우는 그의 예언시들 속에 잘 드러나 있다. Urizen Trilogy는 *The Book of Urizen*(*The First Book of Urizen*이라고 불리우기도 함), *The Book of Ahania*, 그리고 *The Book of Los*를 부르는 말이다. 이 삼부작의 예언시는 인간의 시원(始原)과 세계의 창조를 주제로 한 시들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The Book of Urizen*은 인간과 우주의 창조를 주로 다룬 Blake의 최초의 시이다.³²⁾ 그가 가지고 있는 인간 역사의 시초는 기독교의 인간 역사의 시초와는 전혀 다르다. Blake가 이처럼 인간의 역사의 시초를 자기나름대로 보려는 것은 그의 독특한 역사관에 기인한다.

Blake는 인간이 신에 의하여 창조된 후, Eden 동산에서 살다가, Adam과 Eve가 신의 계명을 어기고 금지된 과일을 따먹음으로써 낙원에서 쫓겨났다는 기독교적인 창조관을 전면적으로 부정한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Blake는 인간이 신에 의하여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Blake는 신이며 인간인 특성을 갖고 있던 우주적인 인간(Universal Man)이 처음에는 네개의 Zoas(“Four Mighty Zoas”)로 분열되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남성적인 Spectres와 여성적인 Emanations로 갈라지는 과정을 거쳐 우주와 인간의 창조가 시작되었다고 본다. 이처럼 우리가 보는 타락한 인간은 신과같은 인간 자신으로부터 소외되고 분열되어, 축소된 형태를 취하게 된 것이다. Universal Man은 다음과 같이 묘사돼 있다.

Four Mighty Ones are in every Man; a Perfect Unity Cannot Exist, but from the Universal Brotherhood of Eden, The Universal Man. (*Four Zoas*, E300-301)

그리고 이처럼 창조이전의 세계는 죽음이 없고, 모든 감각이 신축성있게 된 상태였다.

Earth was not: nor globes of attraction
The will of the Immortal expanded
Or contracted his all flexible senses.
Death was not, but eternal life sprung (*Book of Urizen* 3:36-38, E71)

그러자 고막을 찢을듯이 높은 음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Urizen이 등장한다.

The sound of a trumpet the heavens

31) Paul A. Cantor, *Creature and Creator: Myth-making and English Romanticism* (Cambridge Univ. Press, 1984), p. xii.

32) Cantor, p. 29.

Awoke & vast clouds of blood roll'd
 Round the dim rocks of Urizen, so nam'd
 That solitary one Immensity
 Shrill the trumpet: & myriads of Eternity (*Book of Urizen* E71)

그리면 Urizen으로 대표되는 타락한 인간의 특성은 무엇인가? 그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 중의 하나는 유연한 감각기관(flexible senses)으로 대표되는 Universal Man과는 정반대로 모든 것을 고정시키고 획일화하는 일이다.

I Urizen have fought for a joy without pain,
 For a solid without fluctuation
 Why will you die, O Eternals?
 Why live in unquenchable burnings? (*Book of Urizen* 4:10-14, E71)

Urizen은 타락이전의 영원의 세계에 존재하는 확트인 공간과 유연한 상상력의 활력을 참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Urizen은 자신의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율법만을 강요하여 생명의 유연성을 죽음의 경직성으로 바꿔버린다.³³⁾ 그리고 심지어는 평화와 사랑과 화합과 용서의 법칙까지도 제정하기에 이른다.

Law of peace, of love, of unity:
 Of pity, compassion, forgiveness.
 Let each chuse one habitation:
 His ancient mansion:
 One command, one joy, one desire,
 One curse, one weight, one measure
 One King, one Law. (*Book of Urizen* 4:34-40, E72)

Blake가 이처럼 특이하게 인간의 창조와 타락을 묶어서 보는 입장은 기독교에서는 이단으로 보는 Gnosticism과 아주 흡사하다.³⁴⁾ 20세기에 들어 와서야 Gnosticism의 원천들이 많이 발굴되기는 했어도, Blake가 Gnosticism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은 이와같은 Blake의 생각으로 미루어 보아 의심의 여지가 없다.³⁵⁾

Urizen의 탄생으로 대표되는 Universal Man의 분열과 축소는 또한 보는 눈이 흐려짐을 자연적으로 동반한다. 신처럼 볼 수 있는 능력이 fourfold vision인데 비하여, 사물을 이원적(二元的)으로만 보는 능력은 single vision이다. 사실 single vision은 Damon의 말을 빌리면 vision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³⁶⁾ 이러한 vision은 나무는 나무, 돌을 돌로 그저 따로따로만 볼 뿐, 이들 사이에 연관이나 유대가 있음을 보지 못한다. 이 상태에서는 “눈으로 보기 는 해도 눈을 통하여 보는 것이 아니다.”

33) 노자(老子)도 그의 도덕경(道德經)에서 삶을 유연으로, 죽음을 경직으로 보고 있다.

34) Cantor, p. x.

35) Cantor, p. x.

36) S. Foster Damon, *A Blake Dictionary* (Providence: Brown Univ. Press, 1965), p. 346.

And single vision leads you to Believe a Lie
 When you see with not thro the Eye (*Everlasting Gospel* 100, E520)

이러한 상태는 불교에서 말하는 *vijñāna vision*과 같은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prajñā vision*에서 와는 달리 세상의 모든 것은 이원론적인 구별을 갖고 있을 뿐, *prajñā*에서처럼 통합과 합일의 경지가 아니다. 이와 같은 상태가 바로 Blake가 말하는 selfhood이다. 개체는 개체로서만 존재하기를 고집하고, 자신의 원초적인 특질은 자신의 감옥 속에 갇금돼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Selfhood 속에서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Jerusalem* 40:13, E187). 이러한 상황에서는 영원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다시 찾아 보려고 해도 모두 허사일 뿐이다.

Trembling I sit day and night, my friends are astonish'd at me. Yet they forgive my wanderings, I rest not from my great task! To open the Eternal Worlds, to open the Immortal Eyes Of Man inwards into the Worlds of Thought: into Eternity Ever expanding in the Bosom of God. the Human Imagination (*Jerusalem* 5:16-20, E147)

우주를 궤뚫어 보면 눈은 시력을 잃고, 상상력은 굳어지고 쇠고랑으로 결박지워져 있다.

Forgetfulness, dumbness, necessity!
 In chains of the mind locked up,
 Like fetters of ice shrinking together
 Disorganiz'd, rent from Eternity,
 Los beat on his fetters of iron;
 And heated his furnaces & pour'd
 Iron sodor and sodor of brass (*Book of Urizen* 10:24-30, E75)

이처럼 좁아지고 굳은 시야와 경직된 상상력으로도 타락한 인간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아집과 자만을 갖게 된다. 인간이 타락하여 자신의 시야가 좁아지고 상상력이 굳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처럼 축소된 시야와 상상력을 회복하려는 자각을 갖지 않는 것—이것이 바로 큰 문제이다. 이제 타락한 인간은 자신이 좁아지고 경직된 상상력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는 이제 자신의 이성(Blake는 이것을 ratio라고 부른다)만으로 살아가려고 한다.

By demonstration, man alone can live, and not by faith.
 Mountains are my own, and I will keep them to myself! (*Jerusalem* 4:28-29, E147)

이같이 single vision만을 갖고 사는 타락한 세계에서는, 각 개체들은 Primal Man에서는 한 몸의 지체였음을 잊고, 각자는 서로 서로 아무 연관이 없이 자족하고 따로 떨어져서 사는 selfhood로서만 존재하는 것으로서 착각한다. *Prajñā*가 역동적이고 청조적이듯이³⁷⁾ fourfold vision도 역동적이고 청조적이었다. 그러나, single vision은 더 이상 역동적이고

37) D.T. Suzuki, “Reason and Intuition in Buddhist Philosophy,” in Charles A. Moore, ed., *The Japanese Mind* (Honolulu, HI: The Univ. Press of Hawaii, 1967), p.79.

창조적이기를 그치고, 정체되고 고정되었다. 이런 결과로 Urizen은 딱딱하게 굳은 뼈를 갖게 되며, 활동이 아닌 깊은 잠에 빠지게 된다.

In a horrible dreamful slumber;
 Like the linked infernal chain;
 A Vast Spine writh'd in torment
 Upon the winds; shooting pain'd
 Ribs, like a bending cavern
 And bones of solidness, froze
 Over all his nerves of joy.
 And a first Age passed over,
 And a state of dismal woe. (*Book of Urizen* 10:35-43, E75)

잠은 Blake의 시에서는 타락한 세상에서 활력을 잃고 활동을 중지한 상태이다. 잠을 자게 되면 활동이 없는 것과 더불어 물론 눈을 감게 되므로 보지 못하게—vision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이 경우 Urizen은 Universal Man이 타락하기전(Eternity)에 가지고 있던 vision에 비하면 정말로 미미한 vision만을 갖게 된다.

All the myriads of Eternity:
 All the wisdom & joy of life:
 Roll like a sea around him,
 Except what his little orbs
 Of sight by degrees unfold. (*Book of Urizen* 13:28-32, E77)

Blake의 창조신화에서 Universal Man의 타락은 fourfold vision을 잃는 것이고, 이는 곧 감각기관이 줄어들어 좁아짐을 의미한다. 무한과 영원을 볼 수 있던 감각기관이 줄어들면, 감각의 내부에서 무한하던 감각기능이 유한해지고, 반면 넓은 우주공간을 무한자체로 착각한다.

(all you behold, tho it appears without it is Within, *Jerusalem* 71:17, E225)

The nature of a Female Space is this: it shrinks the Organs
 Of Life till they become Finite & Itself seems Infinite.
 And Satan vibrated in the immensity of the Space! Limited
 To those without but Infinite to those within. (*Milton* 10:6-9, E104)

감각기관이 좁아지고, 막히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자신의 감각이 제한되기 때문에 천체가 고정된 자리를 차지하게 되며, 하늘이 막힌다는 점이다.

When the heavens were seal'd with a stone, and the terrible sun clos'd in an orb, and the moon
 Rent from the nations, and each star appointed for watchers of night,
 The millions of spirits immortal were bound in the ruins of sulphur heaven

To wander inslav'd. (*French Revolution* 10:10-15, E295)

이처럼 감각기관이 굳어지고 좁아지자, 우주와의 소통이 막히고 유동적이고 융통성이 있던 시력도 단지 두 눈으로 고정되고 만다.

when the five senses whelm'd
 In deluge o'er the earth-born man; then turn'd the fluxile eyes
 Into two stationary orbs, concentrating all things.
 The ever-varying spiral ascents to the heavens of heavens
 Were bended downward; and the nostrils golden gates shut
 Turn'd outward, barr'd and petrify'd against the infinite. (*Europe* 10:10-15, E63)

이처럼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감각이 축소되니 타락한 Universal Man은 타락한 감각의 감옥에 갇힌 것이 된 셈이다. 이는 마치 사막에 내던져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

The Guests are scattered thro' the land
 For the Eye altering alters all
 The Senses roll themselves in fear
 And the flat Earth becomes a Ball

 The Stars Sun Moon all shrink away
 A desert vast without a bound
 And nothing left to eat or drink
 And a dark desert all around (*Mental Traveler* 61-68, E485)

이처럼 Blake의 창조신화에서는 Universal Man의 타락한 감각기관이 곧 세상을 만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관(五官) 중에서도 한 곳에만 고정되지 않고 한정되지 않은 감각기관인 촉각만이 하나 남아 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등은 각각 고정된 감각 기관을 갖고 있어, 한정된 감각기능만을 한다. 그러나, 촉각은 어느 한 곳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몸의 전체에 고루 퍼져 있다. 그러므로 촉각은 우리가 Selfhood를 면하는 길을 보여주는 유일한 감각이다. 더구나, 촉각은 성감(性感)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데, Blake에게 있어서 성(性)은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것이어서 우리의 잃어버린 영원과 신성(神性)을 찾게 해주는 유일한 감각기관이기도 하다. 신이며 인간이던 우리가 타락이전에 가지고 있던 가장 훌륭한 감각은 시각이었는데, 이제 타락한 이후에는 촉각만 가장 중요한 감각으로 남은 것은 Blake의 대단히 흥미있는 지적이 아닐 수 없다.

Five windows light the cavern'd Man; thro' one he breathes the air;
 Thro' one, hears music of the spheres; thro' one, the eternal vine
 Flourishes, that he may receive the grapes; thro' one can look.
 And see small portions of the eternal world that ever growth;
 Thro' one, himself pass out what time he please, but he will not;
 For stolen joys are sweet, & bread eaten in secret pleasant. (*Europe* 3:1-6, E60)

이처럼 보는 “눈”(vision)이 줄어들고 고정된 타락한 인간은 정말로 불쌍한 존재이다.

*Four Zoas*에 나오는 The Song of the Daughters of Amalek에서 이렇게 불품없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나온다.

O thou poor human form O thou poor child of woe
 Why dost thou wander away from Tirzah why me compell to bind thee
 If thou dost go away from me I shall consume upon the rocks
 These fibres of thine eyes that used to wander in distant heavens
 Away from me I have bound down with a hot iron
 These nostrils that Expanded with delight in morning skies
 I have bent downward with lead molten in my roaring furnaces (*Four Zoas* 105:31-37, E378-9)

타락한 “눈”(vision)과 감각은 곧 사물을 분명히 구별짓고, 이것 아니면 저것으로 보는 이원론적인 사고체계만을 강요한다. 타락하기 전의 Universal Man에게는 모든 사물은 확연한 구별로 극대화되고 양극화되어 있지 않고, 사물들은 각자의 성질을 가지면서 동시에 융합을 이루었다. 특히 Universal Man에게 있어서는 육체와 영혼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통합적인 유기체를 이루어 역동적인 관계를 이루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그러나 육체와 영혼이 서로 확연히 구별되고, 또한 서로 사이에는 유대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간의 적대관계까지로 발전한다. 이러한 영혼과 육체와의 적대관계는 기독교 교리에서 특히 강조된다. “보는것”(vision)이 강조되던 초기의 계시 종교적인 기초(apocalyptic foundation)는 기독교가 기성종교로서 체계화와 체제화를 이룸에 따라, 영혼과 육체의 영극화와 극단화를 교리로 굳히고 이를 신앙의 중요한 항목으로 삼게 된다. Energy를 상징하는 Devil은 기독교의 이와같은 경직성과 잘못 체계화된 신앙을 *Marriage*의 The voice of the Devil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 All Bibles or sacred codes. have been the causes of the following Errors.
 1. That Man has two real existing principles Viz: a Body & a Soul.
 2. That Energy. calld Evil. is alone from the Body & that Reason. calld Good. is alone from the Soul.
 3. That God will torment Man in Eternity for following his Energies.
 But the following Contraries to these are True
 1. Man has no Body distinct from his Soul for that calld Body is a portion of Soul discerned by the five Senses. the chief inlets of Soul in this age.
 2. Energy is the only life and is from the Body and Reason is the bound or outward circumference of Energy.
 3. Energy is Eternal Delight. (*Marriage*, E34)

이처럼 “눈”이 굳고 감각기관이 좁아지고 막혀 버린 타락한 인간에게는 힘력(Energy) 자체도 죄가 되는 셈이다. 이제 기독교의 성경은 “본 것”을 기록한 것에서 벗어나 신앙을 강요하는 강압적인 규율로 전락해버렸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보는 것(seeing)은 곧 아는 것(knowing)이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이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알지 못하더라도 무조건적인 믿음(faith)에 의해 서만 구원이 있다고 굳어버린 교회는 가르친다. 타락한

(Annotations to Berkeley's *Siris*, E664)

all Animals & Vegetations, the Earth & Heaven

Were containd in the All Glorious Imagination (*Jerusalem* 49:13, E198)

in your own Bosom you bear your Heaven And Earth, & all you behold, tho it appears
Without it is Within In your Imagination of which this World of Mortality is but a Shadow.
(*Jerusalem* 71:17-19, E225)

the real & eternal World of which this Vegetable Universe is but a faint shadow & in which
we shall live in our Eternal or Imaginative Bodies, when these Vegetable Mortal Bodies are no
more. (*Jerusalem*, E231)

All that we See is Vision... Permanent in The Imagination (*Laocoön*, E273)

One Power alone makes a Poet.—Imagination The Divine Vision (Annotations to Wor-
dswoorth's Poems, E665)

이처럼 Blake에게 있어서 Imagination은 the Divine Body of the Lord Jesus (*Milton*
3:4, E96)이고, the Divine—Humanity (*Jerusalem* 70:19-20, E224)이며, 또한 the gifts
of the Holy Ghost (*A Vision of the Last Judgement*, E554)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the Holy Ghost Himself ("On Blake's Illustrations to Dante," E689)이기도 하다. Imagi-
nation이 충분히 소생되면 negation이 없어지고, contraries가 부활하게 된다.

There is a Negation, & there is a Contrary

The Negation must be destroyd to redeem the Contraries

The Negation is the Spectre; the Reasoning Power in Man

This is a false Body: an Incrustation over my Immortal

Spirit; a Selfhood, which must be put off & annihilated alway

To cleanse the Face of my Spirit by Self-examination. (*Milton* 40:32-36, E142)

이처럼 Imagination이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좁아지고 굳어진 감각기관의 통로가 뚫리게 되면, 세상의 모든 사물은 신의 능력을 가진 무한한 존재로 보이게 된다.

If the doors of perception were cleansed every thing would appear to man as it is: infinite.

(*Marriage of Heaven and Hell*, E39)

이렇게 되면 타락한 인간은 어둠의 동굴에서 팔 다리를 움직이고 나와, 눈과 심장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man raise his darken'd limbs out of the caves of night, his eyes and his heart

Expand (*French Revolution* 218-9, E296)

이처럼 Imagination에 의하여 다시 소생하여 활력을 얻은 인간이, 어떻게 “눈”을 떠서 사
물을 다시 보고, 감각기관이 어떻게 다시 아무 거리낌 없이 작용하는가를 다음에서 좀 더
자세히 보기로 하자.

(d) 능력의 통합과 감각의 확장으로서의 상상력과 인간의 재생
Urizen의 혹독하고 전제적인 획일된 규칙에서 벗어나 신으로서의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상상력(Imagination)을 회복하는 일이다. 인간의 구원과 재생에 있어서 상상력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인간의 생명자체이다.

The Imagination is not a State: it is the Human Existence itself (*Milton* 32:32, E132)
 in Visions In new Expanses, creating exemplars of Memory and of Intellect Creating Space,
 Creating Time according to the wonders Divine Of Human Imagination (*Jerusalem* 98:30-32,
 E257-258)

Imagination or the Human Eternal Body in Every Man
 Imagination or the Divine Body in Every Man
 The All in Man The Divine Image or Imagination (Annotations to Berkeley's *Siris*, E663)

이처럼 Imagination의 회복은 곧 신적인 인간성(Divine Humanity)과 우주적인(또는 보편적인) 인간성(Universal Humanity)을 회복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실체는 곧 신과 같은 인간 속에 깃들어 있는 상상력이며, 이것의 회복에 의해서만 인간은 참 인간이 된다.

The Real Self is the Imagination in the Divine Man (*Jerusalem* 77, E233)

그러므로 Blake는 자신이 해야 할 위대한 과업은 인간의 상상력에 의하여 인간이 “눈”을 뜨게 하여 영원을 보고, 신의 가슴속에 들어가 신이 되는 것이다.

I rest not from my great task
 To open the eternal worlds, to open the immortal eyes
 Of man inwards into the worlds of thought, into eternity,
 Ever expanding in the bosom of God, the human imagination.
(Mysticism in English Literature, p.135)

이 같은 생각은 Blake에 있어서는 철저한 신념이다. 그는 이와 거의 같은 말을 *Vision of the Last Judgement*에서 되풀이한다.

The Nature of my Work is Visionary or Imaginative it is an Endeavour to Restore <what the Ancients calld> the Golden Age (*Vision of the Last Judgement*, E555)

Imagination의 회복은 곧 vision의 회복을 의미한다. Ulro의 세계에서 모든 것은 굳어있어 활동이 정지되었다가, 이제 풍篷 열었던 인간의 능력이 상상력에 의하여 해방되면, 상상력은 자유스럽고 역동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지금까지는 Ulro의 상태에서는 외계의 사물과 내부 세계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이 따로 따로 존재하며 오히려 서로 적대관계까지를 유지했다. 이제는 vision과 상상력에 의하여 자연계는 곧 정신계와 합일하게 되며, 안은 바깥과 같게 된다.

What is Above is Within, for every-thing in Eternity is translucent:
 The Circumference is Within: Without, is formed the Selfish Center
 And the Circumference still expands going forward to Eternity.

And the Center has Eternal States! (*Jerusalem* 71:6-9, E225)

Rivers Mountains Cities Villages,
 All are Human & when you enter into their Bosoms you walk
 In Heavens & Earths; as in your own Bosom you bear your Heaven
 And Earth, & all you behold, tho it appears Without it is Within
 In your Imagination of which this World of Mortality is but a Shadow.
 (*Jerusalem* 71:15-19, E225)

어느 누구보다도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상상력을 완전히 활동시키는 인물은 예수이다. 예수는 소생된 인식능력을 가진 인물로서, 자신의 무한한 능력을 잘 알고 있다.

Jesus was thus a supernatural man, one who had achieved the kind of regeneration that Blake felt it was in every man's power to achieve.⁴³⁾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누구나 예수처럼 될 수 있으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Imagination이다. 이 경우 우리는 신으로서 우리가 아는 것이 곧 믿는 것이 되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남에게 믿으라고 강요당하지도 않는다. 우리에게는 아는 것(knowing)은 보는 것(seeing)으로서, 믿음(belief)은 이들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보는 것이 곧 아는 것이므로 아는 것을 믿게 된다.

Truth can never be told so as to be understood, and not be believ'd. (*Marriage*, E38)

이 경우 거짓은 진실로 보여지지도 않으며, 그러므로 거짓을 진실로 믿을 수도 없게 된다. 타락하기 전의 Albion이 그랬듯이 개체는 전체이며, 전체는 개체이다. 또한 인간은 신이며, 신은 인간이다. 그리고 Imagination을 가진 사람은 모든 사물을 그렇게 된다.

Then those in Great Eternity met in the Council of God
 As one Man for contracting their Exalted Senses
 They behold Multitude or Expnading they behold as one
 As One Man all the Universal family and that one Man
 They call Jesus the Christ and they in him and he in them
 Live in Perfect harmony in Eden the land of life (*Four Zoas* 21:1-6, E310-311)

그러므로 Blake에게 있어서 개체(Particulars)와 전체(Universals), 하나(One)와 다수(Many)의 문제는 예수를 통하여 해결된다. 이 두 가지의 다른 것들은 서로가 전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를 통하여 볼 때는 하나임이 드러난다.⁴⁴⁾ 더 나아가서, 주체와 객체, 신과 인간,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것들도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차원에 속한 것들이 아니고 모두 하나의 근원에서 나온 것임을 Blake는 믿고 있다.

You accumulate Particulars, and murder by analyzing, that you

43) Frank N. Magill, ed., *Critical Survey of Poetry* (Englewood Cliffs, of N.J.: Salem Press, 1982), vol. I, p. 208.

44) Damrosch, p. 19.

May take the aggregate; and you call the aggregate Moral Law:
 And you call that Swelld and bloated Form; a Minute Particular.
 But General Forms have their vitality in Particulars: & every
 Particular is a Man; a Divine Member of the Divine Jesus. (*Jerusalem* 91:26-30, E251)

이렇게 되면 자연히 신은 우리 안에 있고, 또한 우리는 신 안에 있게 되므로, 우리와 신은
 들이 아니고 하나이다. 더구나 신이 인간과 같을 뿐만 아니라, 세상 어느 곳에나 그리고 어
 느 것에나 신이 있고 모든 사물은 곧 신이 된다. 이는 불교에서 불성(佛性)은 어느 곳에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God is in the lowest effects as well as in the highest causes for he is become a worm that he
 may nourish the weak

For let it be remembred that creation is. God descending according to the weakness of man for
 our Lord is the word of God and every thing on earth is the word God and in its essence is God
 (*Annotations to Lavater*, E599)

이처럼 신과 인간은 이원론적으로 볼때 서로 다른 차원의 존재라고 여겨지던 지금까지의 신
 넘체계가 Blake에게서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신과 인간은 하나가 된다.

He who sees the Infinite in all things sees God. He who sees the Ratio only sees himself only....
 Therefore God becomes as we are, that we may be as he is ("There is No Natural Religion," E3)

이러한 인식은 더욱 확대되어, 하나의 개인은 모든 인간 가족(the whole Human Family)
 이 되며, 이 인간 가족은 곧 성가정(聖家庭)이 된다.

He who would see the Divinity must see him in his Children
 One first, in friendship and love; then a Divine Family, and in the midst
 Jesus will appear. (*Jerusalem* 91:18-20, E251)

인간의 인식 능력이 확대되면, Universal Man에게나 가능하던 이와같은 신비적인 경험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경험하게 된다. Blake는 이런 경험을 자신이 했으며, 이
 러한 그의 경험을 다른 이들에게까지도 전파하고 싶어한다.

My Eyes more and more
 Like a Sea without shore
 Continue Expanding
 The Heavens commanding
 Till the Jewels of Light
 Heavenly Men beaming bright
 Appear as One Man (Letter to Thomas Butts, Oct. 2, 1800, E713)

이렇게 되면 사람과 신과의 교통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과 무생물사이에도 교통이
 이루어져서, 세상의 모든 사물은 화합의 대 합창을 하게 된다.

Each grain of Sand
 Every Stone on the Land
 Each rock and each hill
 Each fountain and rill
 Each herb and each tree
 Mountain hill Earth and Sea
 Cloud Meteor and Star
 Are Men Seen Afar (Letter to Thomas Butts, Oct. 2 1800, E712)

인간(또는 Universal Man)의 타락의 가장 큰 원인은 negation이다. Negation은 사랑대신에 미움을, 포용대신에 배제를, 능동성 대신에 수동성을 가져오고, 사물을 양극화시킨다. 이런 상태의 인간은 타락하여 Ulro의 세계에 살게 된다. 이러한 negation을 극복하고, 활동력과 역동성을 가져 옴으로써 Contraries가 서로 힘있게 활동할 수 있게 된다.

There is a Negation and there is a Contrary
 The Negation must be destroyed to redeem the Contraries (*Milton* 40:32-33, E142)
 Without Contraries is no progression. (*Marriage*, E34)

이러한 contraries 상태는 우리의 막혀 있고 좁아든 감각기관을 뚫어 놓음으로써 가능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contraries 사이에 역동적인 충돌이 생기게 되며, 소생과 활력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해방이며 부활이다.

Opposition is true Friendship. (*Marriage*, E42)

이렇게 넓어진 감각의 통로는 오직 육체적인 즐거움을 향상시킴으로써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Blake에게 있어서는 육체와 영혼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고 서로 서로 상호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육체는 영혼의 일부이고, 영혼은 육체의 일부이며, 이들은 둘이 합쳐져서 하나의 인간이라는 전체를 만든다.

This will come to pass by an improvement of sensual enjoyment. (*Marriage*, E39)

Man has no Body distinct from his Soul for that called Body is a portion of Soul discerned by the five Senses. the chief inlets of Soul in this age (*Marriage*, E34)

이처럼 역동적인 활동이 생명의 본질이거늘 기독교는 활력의 억제를 전통적으로 강요해 왔다. 특히 순결(chastity)이라는 그럴듯한 이름 밑에서 “여자의 사랑은 죄이다”(Woman’s Love is Sin, *Annotations to Lavater*, E601)라고 가르쳐 왔다. 사실상 기독교가 끼친 가장 큰 폐해중의 하나는 이처럼 강요된 순결을 극대화하여 이를 도덕의 최고 규범으로 삼은 점이다(이에 대한 Blake의 언급은 그의 시 *Europe*의 도처에 나온다). 그 결과 남편이 자신의 아내를 껴안는 것까지도 순결을 어기는 것으로 생각하여 도덕의 이름으로 억제하게 했다.

a Man dare hardly to embrace
 His own Wife, for the terrors of Chastity that they call
 By the name of Morality. (*Jerusalem* 32:45-47, E179)

기독교에서 이처럼 강압적으로 지켜진 규범적인 순결은 처녀성 또는 동정(童貞)이라고 불리운다. 이렇게 강요된 순결은 인간의 활력을 막는 것이므로 결국에는 커다란 재앙의 근본이 된다.

Pale religious lechery call that virginity, that wishes but acts not! (*Marriage*, E45)

He who desires but acts not, breeds pestilence. (*Marriage* 7:5, E35)

타락이전의 Universal Man에게는 성의 구별이 없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남자와 여자의 성이 자신 안에서 조화롭게 작용하고 있었다(이는 Jung의 심리학에서 말하는 animus와 anima와 아주 흡사하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에게는 이 두가지의 서로 다른 성(性)이 공존하는 것이 아니고, 남성인 Spectre에게는 남성만, 여성인 Emanation에게는 여성만이 있을 뿐이다. Ulro의 세계에서는 이들은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반목과 투쟁만을 일삼는다. 그러나 다시 인간이 회생하게 되면 이들 양성은 한 인간속에서 contraries로서 역동적으로 활동한다. 양성이 한 몸에 같이 있는 경우에도, Ulro의 세계에서는 hermaphrodite라는 형태를 취한다. 이 hermaphrodite는 양성이 같은 몸에 있으나, 서로 반목 질시하며 투쟁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양성이 한 몸에 있어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Blake는 androgynie이라고 부른다. 이상태에서는 양성은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소생된 상상력을 가진 남성에게 있어서는 여성은 단지 소유나 정욕의 대상이 아니고 신의 걸작품으로 여겨진다.

The nakedness of woman is the work of God. (*Marriage*, E36)

왜냐하면 살아 있는 모든 것은 성스러운 것이지만(*Marriage*, E45), 그 중에서도 여성은 더구나 아름다움의 극치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간에게 있어서는 활력(Energy)은 아주 중요하며, 활력을 억제하는 것은 곧 죽음을 초래하는 것이다.

Energy is the only life (*Marriage*, E34)

타락한 세상에서 Urizen은 인간이 활력을 갖지 못하도록 모든 생물들에게 한 가지의 획일적인 규범을 강요함으로써 순종과 수동적인 생활태도만을 강요했다. 교회 또한 순결이라는 명목하에 활력을 억제했다. 이는 “활력이 영원한 기쁨”(*Marriage*, E34)이라는 진리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생명력을 되찾은 인간은 부활한 인간이고, 해방된 인간이다. 그는 더 이상 넘쳐나는 생동력인 활력을 억제할 필요가 없다. 그는 구원을 받은 인간이기 때문이다.

Men are admitted into Heaven not because they have <curbed &> governd their Passions or have No Passions but because they have Cultivated their Understandings. The Treasures of Heaven are not Negations of Passion but Realities of Intellect from which All the Passions Emanate <Uncurbed> in their Eternal Glory (*A Vision of the Last Judgement* 87, E564)

이러한 인간의 활력을 억제하는 것은 결국에는 인간능력의 경색을 불러일으킨다. 더구나, 인간의 활력을 과도하게 억제하면 비정상적인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다. Blake은 이런 현상을 Orc라는 인물을 통하여 신화적으로 보여준다. Orc는 성적인 활력까지를 포함하는 인간

이 갖고 있는 활력의 근원이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생명력을 억압하는 Urizen에게 대항하여 투쟁하기도 한다. 이러한 Orc의 활동력을 억압할 경우, 이것이 폭발하여 전쟁이나 혁명이라는 파괴적인 폭력으로 발산된다. 이처럼 활력을 정상적으로 발산하지 못하게 할 경우 파괴적인 공격력으로 발산한다고 본 Blake의 탁월한 선견지명은, 그 뒤에 나온 Freud의 심리학에서 하나의 학설로 성립된 셈이다. Freud는 인간의 활력소인 성본능을 억제하면 neurosis나 hysteria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Freud의 관점은 개인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지만, Blake는 개인과 인류전체를 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상적인 집단에게서 활동 본능을 억압할 경우 폭력적인 반항의 형태로 혁명이나 폭동이 일어날 소지는 충분히 있다. 이러한 활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인간의 활력이 자유스럽게 작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소생이며, 부활이다.

부활한 인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 하나의 개인이 따로 따로 존재하면서 서로 간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이 사는 것이 아니고, 서로 서로는 깊은 연관성이 속에 산다. 그러므로 하나의 인간은 곧 인간 전체를 가슴에 품고 산다. 이러한 처지에서는 나는 곧 남이요, 남은 곧 나다. 나와 남이 따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곧 Blake가 말하는 Brotherhood이다.

Four Mighty Ones are in every Man;
a Perfect Unity
Cannot Exist, but from the Universal
Brotherhood of Eden
The Universal Man. To Whom be
Glory Evermore Amen (*Four Zoas* 1:4-6, E300-301)

이같은 연대감(Brotherhood)은 곧 Friendship 이기도 하다.

This is Friendship and Brotherhood without it Man Is Not (*Jerusalem* 96:16, E255)

이렇게 되면 인간은 누구나 형제이고 친구가 된다. 인간은 한 가정에 속한 식구인 셈이다.

all equal share
Divine Benevolence & joy, for the Eternal Man
Walketh among us, calling us his Brothers & his Friends: (*Jerusalem* 55:8-10, E204)

서로가 형제이고 친구인 인간은 자신의 emanation과 결합하여 완전한 인간이 된다. 이는 곧 분열된 자아가 합일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며, 개인차원에서의 합일은 곧 인류전체의 합일로 이르게 된다.

When in Eternity Man converses with Man they enter
Into each others Bosom (which are Universes of delight)
In mutual interchange. (*Jerusalem* 88:3-5, E246)

이러한 합일이 이루어지면 우리 모두는 동기간의 우애라는 곧으로 연결된다.

When Souls mingle & join thro all the Fibres of Brotherhood
 Can there be any secret joy on Earth greater than this? (*Jerusalem* 88:14-15, E246)

이렇게 해서 신이며 인간이고, 개인이며 인류인 Albion이 역사와 우주 전체를 품고 하나의 전일(全一)한 인간으로 소생한다. 그러므로 그의 생각은 전 우주를 다시 채우게 된다.

One thought. fills immensity. (*Marriage*, E36)

III. 맷는 말

지금까지 보아 왔듯이 Blake는 아주 독특한 신비주의자이다. 그는 전통적인 기독교의 신비주의자가 아니다. 그에게 있어서 신비주의는 신의 지음을 받은 인간이 창조주인 신과의 합일을 이루려는 노력이 아니고, 인간을 곧 신으로 봤다. 그의 일생의 작업은 그러므로 우선 인간이 어떻게 하여 Universal Man에서 타락하여, 왜소하고 감각이 좁아지고 편협한 인간이 됐는가를 보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의 인간관 및 세계의 창조관을 보여준다. 그는 세계는 곧 인간의 의식의 소산으로 보았으며, 그의 이러한 견해는 그의 창조에 관한 3부작, *The Book of Urizen*, *The Book of Ahania*, 그리고 *The Book of Los*에 잘 드러나 있다.

그에게 있어 인간의 타락의 원인을 밝히는 작업은 곧 인간의 구원을 위한 준비 작업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후기의 예언시들, 특히 *Milton*과 *Jerusalem*에서 인간 구원의 문제를 다룬다. 인간의 구원은 곧 소외되고 조각난 인간의 능력을 통합하는 것이라고 그는 보았다. Blake의 일생은 이렇게 볼 때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의 끊임없는 “정신적인 투쟁”(Mental Fight, *Milton* 1, E95)이었다.

Blake의 신비주의에서 특이한 점은 인간이 곧 타락한 신이라고 본 점이다. 이는 불교에서 인간은 누구나 깨달음을 통해 부처(즉 깨달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과 같다. 특히 Blake가 “보는”것을 중요하게 여긴 것은 선의 수행과 통하는 점이다. 그는 인간의 구원은 가장 잘 보는 능력인 Imagination의 회복에 있다고 봤다.

He who does not imagine in stronger and better lineaments, and in stronger and better light than his perishing mortal eye can see does not imagine at all (*A Descriptive Catalogue*, E541)

이처럼 보는 능력은 인간은 모두가 서로 서로 형제이며 친구임을 알게 하여, 각자는 곧 인류 전체임을 알고 느끼는데 있다고 Blake는 보았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Imagination에 의하여 구원받고 회생되는 것이 곧 인류 전체의 구원이라고 Blake는 생각했다. Blake의 이 같은 우주적인 세계관은 그의 신비주의의 요체이다.